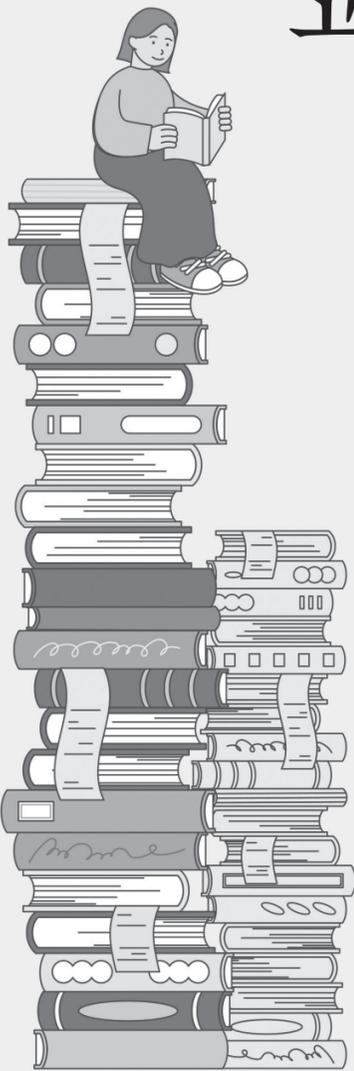


고전에서 찾은 부의 철학과 자기혁신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고명환 | 라곰 | 1만7800원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 마라. 마땅히 가져야 할 자신의 부를 거머쥐라!”

자기계발과 고전 해석을 결합한 독창적인 방식으로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온 작가 고명환이 신작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로 돌아왔다.

전작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로 제11회 교보문고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며 고전 읽기 열풍을 이끈 그는 이번 신간을 통해 독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인 ‘돈’을 파고든다.

이 작품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돈은 무엇이며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라는 실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위대한 개츠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등의 고전에서 그 답을 찾아 나서며 저자가 20년간 읽은 4000여권의 책 속에서 길어낸 돈의 원리, 부의 철학, 실질적인 전략을 ‘고명환식 해석’으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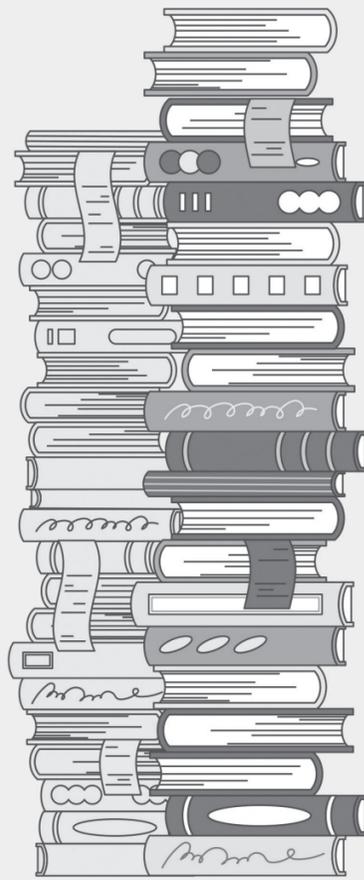
본문에는 치열한 삶 속에서 돈의 본질을 바라보는 법과, 경제적 자유를 위한 실천법,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태도, 부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 등이 쉽고 간결하게 실렸다. 또한 부록으로 ‘부자들의 언어’라 불리는 금융 용어 36개를 해설한 강연 영상이 QR코드로 수록돼 독자들의 실행력을 돕는다.

고 작가는 4년째 매일 아침 10만명에게 유튜브 강의를 하고, 한 달에 30여 차례 전국 강연장에서 독자들을 만나는 명실상부 이 시대 최고의 자기계발 작가로 손꼽힌다. 실제로 그는 2014년 창업한 국수 전문점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로 10년간 연매출 10억원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으며, 육수 공장까지 설립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실패도 있었다. 닭가슴살, 포장마차 등 다양한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 후의 재기. 그리고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에 이끌려 독서에 몰입한 결과, 그는 마침내 ‘돈에서 해방된 자’가 됐다고 말한다.

그가 써낸 이번 신간은 질문하고, 깨닫고, 행동하게 하는 ‘자기계발 고전’의 진화로도 읽힌다. 단순한 ‘부자 되는 법’ 매뉴얼이 아닌, 독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워크북인 셈이다. 총 46개로 구성된 질문은 독자가 자신만의 답을 찾고, 지금 당장 행동하게 만든다. 책을 읽는 즉시 고민을 실천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고 작가는 책을 통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능력자가 있다”고 말한다. 그 능력을 깨우는 열쇠가 바로 고전이라는 주장도 부연한다. 독자가 자기 안의 힘을 재발견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사유하게 만든다.

“당신은 원래 큰 사람이다.” 작가의 말처럼 지금, 당신 안의 가능성을 깨우고, 위대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시간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치매 진단부터 돌봄까지...16년 현장이 담긴 안내서

치매는 처음이지?
홍종석 | 디멘시아북스 | 2만2000원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치매는 주변 어딘가에서 보고 접하는 일상이자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현실이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닥친 치매 진단.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두려움’과 ‘막막함’이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까?” 등의 고민 앞에 서게 되는 치매 가족들을 위해, 16년간 치매 현장을 지켜온 사회복지사 홍종석 작가가

현실적인 해법을 담은 안내서를 펴냈다.

이 책은 Q&A 형식으로 풀어낸 ‘현실 밀착형 치매 가이드’다. 치매 진단 전후에 겪게 되는 복잡한 절차와 제도, 경제적·법적 문제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실제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 구성된 이 책은 정확한 정보는 물론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치매 검사와 진단 과정의 실제 절차 △장기요양보험 신청 △재가돌봄 서비스 △요양시설 선택법 △돌봄 비용 △각종 경제지원제도 및 세금 혜택 △부모님의 재산관리와 후견인 제도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 아

울러 “치매여도 괜찮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존중과 연대의 치매공생사회를 구상한다.

이처럼 작가는 치매 환자도 존중받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이해 속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연대하는 날을 희망한다. 치매를 단절의 계기가 아닌, 관계를 다시 맺는 ‘연결’의 출발점으로 바라본 것이다.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해외의 치매 친화적 정책과 돌봄 사례를 함께 소개하며, 치매 환자도 삶의 주제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신간은 가까운 가족이 치매를 앓거나 노년기 돌봄을 준비하는 누구에게나, 가장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박찬 기자**

볼 수 있는 동안에
차경 | 책과이음 | 1만6800원



어릴 적 우연한 사고로 왼쪽 눈에 이상이 생긴 저자는 어느덧 17년 차 포토그래퍼가 됐다.

왼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어버린 그는 ‘세상의 잣대로는 미달한 자력’을 가졌다고 스스로 말한다. 이는 사진작가의 길 위에

서 더욱 피사체의 본질에 가까이 가닿으려 열정적으로 촬영 작업에 몰두한 자국이 됐다.

그림자처럼 빛 속에 모습을 숨기고, 뜻대로 되지 않는 왼쪽 눈을 감시하고 원망하며, 사람들에게 눈의 이상을 숨기려 발버둥쳤다.

이 작품은 삶에서 맞닥뜨린 좌절과 성장에 관해 담담히 풀어낸다. 작가의 이야기는 시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다.

기본사회
이한주 외 3인 | 다반 | 1만9800원



강한 기본사회를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기본소득이나 복지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이 책에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삶’이란 무엇인지, 기본사회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기본사회와 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미래의 기본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써 ‘기본적 삶’은 단지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참여를 자유롭게 영위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물 농장(만화, 보급판)
백대승 | 아름드리미디어 | 1만원



조지 오웰의 SF 명작 ‘동물 농장’이 만화로 되살아났다. 절대 권력의 이면을 뛰어난 은유와 날카로운 풍자로 묘사한 원작에 그림책 작가 백대승의 만화, 김옥동 교수의 해설이 만나 뛰어난 몰입감을 선사한다. 동물과 인간의 정면 출

동 등 전체주의와 권력의 어두운 진실이 장면마다 긴박감 넘치는 생생한 만화로 재현됐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라는 유명한 구절은 80년 전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점을 날카롭게 꼬집은 원작의 대표적 예다. ‘이미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독자들은 이 만화 보급판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는 모순투성이인 세상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은유 속에 흠뻑 빠질 것이다.

“인류사는 모방의 역사다”

호모레퍼런스
김문식 | 미다스북스 | 3만2000원



호모사피엔스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모방이다. 엄마와 아빠의 행동을, 친구의 행동을, 선생님의 행동을 모방하며 인류는 조금씩 앞을 향해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인류는 단순히 따라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부모의 행동을 따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응용하고, 친구의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저런 부분에선 비판했다. 인간은 모방에서 시작해 응용과 비판을 거쳐 무언가를 창조했다.

피엔에프시스템즈 대표이자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김문식 교수는 이런 모방에서 시작해 창조로 이어지는 과정을 ‘레퍼런스’, 즉 참조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류는 참조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기에 ‘호모레퍼런스’라는 ‘학명’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출간된 ‘호모레퍼런스’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 문명의 진화사를 ‘참조’의 관점에서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250만년 전 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구하게 흘러온 인류의 모방과 참조의 역사를 그려낸다.

책에 따르면 인류는 250만 년 전 최초의 석기 제작부터 이전 세대의 기술을 참조해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발달한 “창조적 참조 능력”은 인류를 특별하게 만든 핵심 요소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호모사피엔스는 단순히 도구를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학습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갔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배울 수 있다면 다른 종(種)의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피엔스는 흠치고 배우며 성장했다.

그런 지난한 학습 과정을 통해 인류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돌, 청동기, 쇠, 증기기관의 등장처럼, 인류 문명이 변곡점에 접어들 때마다 인류는 기존 구조와 기술을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을 창출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슈페터(1883~1950)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가 발생한 것이다. 저자는 그런 혁신의 시작이 참조라고 강조한다. 요컨대 “인류사는 참조의 역사”라는 것이다.

박찬 기자·연합뉴스